

김지사, 산불 대응·스마트농업 현장 행보

함평산불대응센터 찾아 안전 진화체계 구축 강조 나주 한국형 시범단지서 자율주행 등 시연 참관

김영록 전남지사가 봄철 산불 대응 현장과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전 함평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 봄철 산불 대응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살피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진화차와 장비 상태를 점검한 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 없이 진화에 최선을 다해 준 진화대원을 격려하고 안전한 진화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주말까지 산불 예방과 대응에 힘쓰는 진화대원을 비롯한 산림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시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지휘 체계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나주에 조성 중인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노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

지 조성사업'은 DNA(DataNetwork, AI) 기반의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디지털트윈 스마트 물관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함평군 산불대응센터를 찾아 봄철 산불대응 상황 및 장비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벌였다. <전남도 제공>

체계 구축 ▲인공지능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 ▲첨단 시설물 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DNA 기반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은 노지 농업(논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농작업을 정보화·자동화·지능화하는 모델이다.

김 지사는 사업 추진 상황과 노지 스

마트농업 핵심 기술을 보고받고 관수로형 스마트 물관리, 자율주행 농기계 운영, 무인 육묘시스템, 배터리 자동교체형 드론스테이션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김 지사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노지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농업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내달 26일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

전남도, 사무·관리·생산·서비스직 등 기업 모집

전남도가 오는 4월26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사무·관리·생산·서비스직 등 전남지역 다양한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가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을 비롯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목포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체-구직자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결과 취업기회 확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인제 채용 및 면접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업 홍보와 함께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현장 채용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일자리정책 홍보관과 구인·구직 매칭지원을 위한 현장매칭관, 이력서 사진 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 1차 모집은 오는 28일까지며 최종 모집은 4월5일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

ttps://jo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문의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

'광주 청년정책 길라잡이' 발간

광주시는 24일 "일자리, 주거, 교육·역량 강화,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광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5개 분야 135개 사업을 담은 '2024 광주청년정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청년정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청년 통계와 주요 청년정책 달력, 우리동네(자치구) 청년정책 등이 함께 수록됐다.

특히 책자에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전화번호가 수록돼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지역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을 통해 '2024 광주청년정책 길라잡이'를 배부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광주청년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강 기자

'중앙공원 1지구'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빛고을SPC "선분양 전환 시 1천억원 공공 기여"

민간 공원 특례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규모 변경안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사업자 부담 공공 기여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의 뒤 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했다.

도시계획위는 비공원 시설(아파트)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분양 방식 변경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에 요구한 공공 기여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증가한 아파트 용적률로 인한 40세대 증가분, 공공기여 20억원 감면액과 함께, 선분양 재전환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1천억원을 공공 기여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위원들은 분양가 기준이 되는 건설 원가 산정의 신뢰성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 공원 수준 저하 우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공공 기여 등 관련 협의를 거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면 도시계획위는 협약 내용을 토대로 재심의하게 된다.

선분양에서 후분양,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길 특혜 논란을 해소할 해법이 협약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천7㎡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는 비공원 시설 면적에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박성강 기자

'경력이음바우처'로 여성 구직 돕는다

도, 30-65세 취업 준비 비용 50만원 지원

전남도는 24일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에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취업·면접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65세(1959년생-1993년생)로 재취업을 바라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은 여성, 여성 농업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는 신청 시·군에 소재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발급하고,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재취업을 바라는 여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길 바라며 전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신기술 실증 창업기업 내달 12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24일 "2024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5일부터 4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활용하는 '실증도시 광주'를 조성, 36개 기업에 실증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자율형 ▲솔루션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박성강 기자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5천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솔루션형은 월급1동 일원의 폭염 취약지역에 적용 가능한 폭염 저감 기술이 적용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박성강 기자

www.kps.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